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5월 5일 (제100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럼

가족(家族)

가정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들어진 최초의 공동체로, 인간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안정된 가정이 될까? 나는 가족 간의 윤리가 확립되어야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먼저 부부윤리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8~19). 가정의 중심은 부부(夫婦)다. 부부는 일심동체인자라 무촌(無寸)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윤리는 존재한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법사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엡5:24). ‘법사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내의 복종에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 말에 ‘때가 어느 때에 여필종부(女必從夫)냐’며 반기를 드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어찌하셨는가? 당신을 죽이기까지 하셨다. 그런 남편이라면 족히 복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찌니 낙심할까 함이라”(골3:20~21).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순종하라는 것이다.

부모의 윤리도 있다. 채찍이 천대(千代)를 기르는 법, 무조건 ‘오냐 오냐’가 아니라 사랑을 기초로 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육이 아닌 양육이 되는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의 윤리가 정립되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한다.

올해는 우리 차례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실행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진대, 우리에게 꿈과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믿는다. 이는 이미 우리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솔하게 경험한 바요, 특히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어지게 되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여 정착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담임목사님의 설교, 그분의 평판, 성향, 그리고 그 교회의 분위기 등을 알아보고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각 교회에 세운 목사를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고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보이는 목자를 섬기는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샅군 목자들로 인해 이런 순수성이 훼손되곤 한다.

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고 격려하며 성도들을 섬기면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자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복잡하게 생각 말고 청지기 역할만 잘 하자. 어차피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양떼 아닌가.

반대로 성도들은 총회장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비교하여 기대치를 높이지 말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다 사도 바울일 수 없다.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지 않는가(엡 4:11~12). 총회장 목사님은 사도적 권능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이다. 또 그



올해, 교단 매가의 부흥을 꿈꾼다!(2019 교단 목회자 세미나 광경)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올해 교단적으로는 교회부흥의 꿈을,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내 차례야!’하며 입을 크게 벌리며 각자 꿈을 키우는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는 지금,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제로 각 교구나 구역, 그리고 각 부서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구체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표적이란 확신이 든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

그리고 분명 교회에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도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항상 깨어 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지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를 찾는 성도들 대부분은 총회장 목사님을 보고 찾아온다. 각 교회를 맡고 있는 주의 종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각 교회 담임목사를 보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아니고 총회장 목사님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다.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은사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교회를 맡고 있는 주의 종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잘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총회장 목사님의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나 관리에 혹시

리기 위해 34년을 부단히 자신과 싸우며 오늘에 이르신 분이다. 목회 경험이 일천한 어린 종들을 총회장 목사님을 보는 자대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닐까. 오히려 ‘저 어린 종을 도와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내가 일조하리라’는 생각으로 목자를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비록 성에 차지 않더라도 한 종을 키운다는 자세로 기도해주고 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은 절로 따라오리라 믿는다.

올해는 우리 차례다! 입을 크게 벌리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중심 교단이 되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20:24)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제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저는 청년사업가로 잘 나가고 있었고, 정치에 대한 야망도 있었으며, 육영사업까지 병행하고 있어 세상 부러운 것이 없던, 나름대로 완벽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산 자동차가 새로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 당시 흔치 않았던 명품으로 스타일을 내곤 했습니다. '이사장' 하며 따르던 친구들도 많았고, 술통을 지고는 못가도 퍼마시며 삶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저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내며 예수를 전했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뒤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도, 그렇게 따르던 친구도 다 떠났을 뿐더러 교계로부터도 분리되는 등,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완전히 망한 자였습니다. 어쩌다 살던 동네가 그리워 가보면 행여 돈 빌리러 왔나 싶어 친구도, 안면 있던 동네 분들도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누비던 그 시절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너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 없는 사막의 길을 걸었고, 눈 덮인 사막을 지나왔지만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다!”라고. 행복한 노예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십니까? 이스라엘 규례에는 같은 민족으로 종이 된 경우에 종 된 자가 만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거나 혹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오면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공인을 받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 그 종이 영영히 상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출21:5~6). 상전을 사랑하므로 스스로 종이 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므로 스스로 종으로 매인 바 되었고,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눈물 나도록 행복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의 삶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울(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가문과 학식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3:4~6)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8~9).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고난의 길을 자

초한 것입니다. 그는 험벗고, 매 맞고, 정처 없는 자가 되었고, 이단의 과수로 지목되어 마치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으며, 더욱이 미말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였으니 그는 불행한 자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며 행복에 겨워 환호했습니다. 되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딤후1:13)라고 회상하며, 13서신을 통해 그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세의 삶도 그 자체로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매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이니 그 삶을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강건해야 7,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장수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그저 속절없이 신속히 날아가갈 뿐입니다(시90:10). 마치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임을 당하는 풀과 같습니다(시90:5~6). 그렇다면 인생이 허무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행복

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멋진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인생이 뭘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인생을 만들고 허락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



총회장 이초석 목사

복한 자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 고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난 자가 있다면 행복하겠지요? 확실한 삶의 목적을 정한 자니까요. 그 대상이 예수라면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3~24).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릴 수 있는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던졌을 때 불행을 느낀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시죠?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전부 드린 자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16:3~4). 그들은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울을 섬겼고, 섬김으로 행복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를 위해 눈이라도 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나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풍족하게 하고,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에게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풍족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7~19).

사랑하기에 구속되는 것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예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들에 연연하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소금물을 켜는 것과 같아서 먹을수록 더욱 갈증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여 결혼하면 서로에게 구속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그 구속을 기뻐하고 묶임에 행복을 느끼듯,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명예를 매고, 착고에 채워짐이 오히려 행복의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착고가 구속처럼 느껴집니까? 그 멍에가 무겁습니까?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 던지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시2:3~4).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끝까지 잘 감시다.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에 눈멀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위한, 예수에 의한 삶을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것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할렐루야!

대접 받기 원하면 대접하라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곱다.’ 우리가 자주 듣던 속담이다. 상호존중의 정신을 아주 쉽게 설명한 말이다.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것이 인 지상정(人之常情)이다. 폭언이 난무하며 무시 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인 이상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다. 사회 각 영역의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애쓰는 것도 이러한 심정의 표현이다. 갑질이니, 율의 반격이니, 미투니 하는 모든 작금의 사회현상들도 그 바닥을 들추어보면 거기엔 인간존중, 상호존중 정신의 결여가 낳은 아픈 생채기들로 가득하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6:31)는 예수님의 말씀은 ‘Give & Take’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말씀하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희생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인간관계는 통상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정이 싹트고 관계도 깊어지는 법이다. 일방통행은 없다. 하여 네가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기 원하면 너도 대접하란 말씀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대접해드려야 우리를 대접해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죄악을 물마시듯 하는데 과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천천만만이다. 우리가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모든 일에 다 오케이 하시

진 않는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말 안 듣고 제 뜻대로 행하는 자식을 예뻐할 부모가 어디 있는가? ‘자식이 웬수야, 드러운 상전이야’ 하며 차마 내치진 못해도 결코 예뻐할 수는 없는 거다. “내가 아꼈던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롬9:13)하지 않으 시던가? ‘열손가락 중에 안 아픈 곳이 있 겠느냐’며 모든 자식에게 마음이 쓰인다 고는 하지만, 그 자식 중에도 사랑이 가 는 녀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기 마련이다. 자기가 하는 만큼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것 아닌가. 이는 조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장이나 윗사 랫 입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직원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 직원에게 더 관심이 가고 챙겨주게 되는 거다.

대접이 꼭 맞난 거 사주고 선물하는 걸 의 미하는 게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가 곧 상대에 대한 최상의 대접이다. 누구 를 대하든지 인간존중의 겸허한 자세가 중요하다.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영혼은 없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사 실을 기억하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 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 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 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3~4).

Henry Han

상처에 새겨야 할 흔적

누구나 한두 개쯤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에는 남모르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친구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상처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역울한 일을 당해서 만들어진 상처는 분노와 복수심을 남긴다. 동업하다가 배신을 당했을 때에는 물질적인 손해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남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난 상처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창 자국 난 옆구리의 상처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복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온 우주에 나 혼자 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거나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진 상처에 반드시 새겨야 할 흔적이 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랑의 흔적이요, 부러진 관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흔적이요,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흔적을 새겨 놓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상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산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으나 그 고난의 행진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이야기를 자기 상처에 새겨 넣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와 현재의 상처가 흉한 상처 자국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그 상처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남보다 더 아픈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면서 갖게 된 상처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다 갖게 된 상처들,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다가 갖게 된 상처들, 이 모든 상처들은 어느새 사명이 되어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간증이 된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걸어간 끝에 예수님이 서계신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이정금 전도사

소망의 뜻을 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 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터 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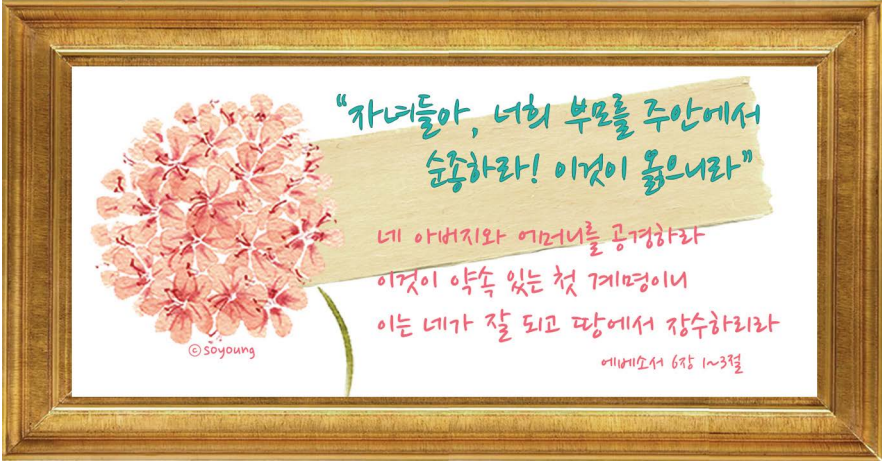
어느 날, 어느 때처럼 고민 속에 잠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의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강남 같은 대로변에 높고 큰 건물이 세워져있는데, 건물에 ‘그레이스 하우스’라고 적혀있는 꿈이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꿈이라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감사했고, 이 꿈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자주 들여다본다. 요셉이 꿈을 간직하고 역경을 헤쳐나간 것처럼 나도 이 꿈을 통해 소망의 뜻을 올리게 되었다. 물론 파도가 밀려오고, 태 양도 뜨겁고, 때론 태풍이 몰아쳐 오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고,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낀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조금씩 사업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꿈에서 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한다.

올해 초부터 계속 ‘네 입을 크게 열라.’는 이시대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도 한 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그때 “왜 네가 하려고 하니?”라는 음성이 들렸다. ‘아차!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채우리라’(시81:10) 하셨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하고 회개했다.

나는 장차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은성 성도
es2563@naver.com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편의점에 들러 라면 2팩을 구입하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 찰나, 편의점에 한 손님이 들어왔고, 정산하려는 점장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소 알고 지낸 사 이인 듯 보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 오면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니 생 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10개의 라면 을 구입했는데 단지 6개의 가격만 계 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담소 를 나누고 있는 점장님과 손님에게 양 해를 구하고 계산을 다시 해달라고 부 탁드렸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해보고 바 코드를 다시 찍으면서 점장님이 말했습 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인사하느라 계산을 잘못했네요. 손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정직하게 계산해야 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정직할 수 있었다는 기쁨에 저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함께 갔었던 아들을 말입니다. 짧은 시 간이었지만 아들은 옆에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고, 이제 막 초 등학생이 된 아들은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연 설명을 따

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일상이 아이의 눈에 담겨 큰 여운으로 남길 바라셨었습니다. 때때로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교육으로 남는다는 것은 참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도원집회 때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무엇보다 제 눈 깊게 빨려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회 마지막 날, 모든 설교를 마치고 의자에 앉으셔서 꼭 모은 두 손 위에 이마를 대시며 숨을 돌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뻑뻑한 일정을 감당케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께 나지막이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불살라 새하얗게 재가 된 것처럼 보이시는 목사님 머리 위로 기도원의 스크린이 있었습니 다. 저는 그 장면이 한 장의 사진처럼 뇌 리에 새겨졌고 눈물이 났습니다. 큰 울 립이 되어 제 마음을 진동시켰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큰 여운이 남길 바랐던 것처럼 목사님의 모본이 제 마음에 큰 여운이 되어 조금이라도 목사님을 닮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 일본에서 온 편지 ::

:: 귀를 기울이세요 ::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외자(外資)계 회사에 다니며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도, 세상에서도 참 여러모로 우수한 딸을 가진 엄마는 딸이 마냥 자랑스러웠고, 마침내 자신의 자존심이 되어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쇼크로 딸이 다니던 회사는 미국으로 철수했고, 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지만 높은 커리어가 방해했는지 회사들은 부담이 된다며 판 곳을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천천히 직장을 찾아봤지만 결국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지 못한 채 2년이 지나자 딸은 우울증에 걸렸다. 방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오지를 않았다. 엄마는 겨우 달래서 함께 쇼핑을 하는 등, 이전의 딸로 되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고,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했다. 살기 위해, 딸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서 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고 사주었다. 그러나 딸은 더욱 악화되었고 심지어는 자살소동도 벌이게 되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으니 예뻐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살만 동실동실 찌자 그런 자신의 모습에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갔다. 엄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에는 굉장한

커리어 우먼이었다고 여전히 딸 자랑을 하며 자신의 위로로 삼는듯했지만, 딸의 병수발과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이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그렇게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가 차츰 어두워져갔고, 어느덧 주일도 빠지게 되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후 배가 자꾸만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된다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주의 종의 눈에는 복수가 찬 것처럼 보여서 기도를 해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다음날 병원까지 데려다주었고, 일주일 후에 검사결과는 암 3기 말이었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면서도 엄마는 기도애 매달리지 않았다. 얼마 후에 다른 부위에서 또 암이 발견되었다. 이미 퍼졌는지 수술은 어렵다고 항암치료만 하면서 입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우울증이 심했던 딸은 우울증이 간곳 없어지고 멀쩡해졌다. 그러나 딸과는 반대로 엄마는 호흡이 곤란해졌고, 주일에 배 후 종이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엄마와 여동생, 딸과 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 가기 전, 집사님들을 기다리면서 주의 종은 장례식과 딸 위해 힘쓰고 애쓰다 간 엄마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갑

자기 감고 있는 눈 위로 머리 위가 환하게 밝아지고 교회 단상 쪽에 소원한 그 엄마가 천사들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이 환상이 보였다. 마치 “목사님, 마지막에는 주일도 못 지키고 교회도 똑바로 못 갔는데도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웃는 얼굴은 세상근심이 다 사라진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주님의 은혜로 우울증인 딸도 안정된 상태였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약속했다. 그 후 딸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자존심이 될 만한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또 있어서 되는지 생각하게 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걱정했지만 떠날 때는 결국 혼자이고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9:23~24).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최초의 교육기관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부모가 바르면 자녀는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늘 싸우면 자녀도 결핵해서 싸우며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압니다. 충신 집안에서 충신 나는 법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당연하니까요. 아이는 부모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의 큰 스승이고 디딤돌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부모는 노력해야 될 수 있습니다.

:: From Internet ::

히틀러의 증오

히틀러(Adolf Hitler), 그의 아버지는 행상인으로 물건을 사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팔았습니다. 다 팔 때까지 한 달, 두 달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늘 집을 비웠지요. 히틀러의 어머니는 그것을 못 견뎠습니다.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이웃남자들과 불륜관계를 맺습니다. 히틀러는 돈 많은 유대인과 어머니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했지

만, 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미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후에 나치 총통이 된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전쟁 중에 그는 유대인 말살정책을 폈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학살했습니다. 사생활에서도 그는 주변에 수없이 여자가 많았지만 여자들을 미워하고, 끝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인싸가 되세요

‘인싸’, ‘JMT’, ‘TMI’, ‘TMT’, ‘툼곡’, ‘소확행’ 등등,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글을 쓰면서 ‘할말하얏’이라는 말을 써보니 이 주제에 대해 우리 교회 식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청년부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분명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장년층 교회 식구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우선 ‘할말하얏’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오해할 수 있다고 여길 때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쓰는 말이지요. ‘인싸’는 영어 outsider(외부인, 왕따 등의 의미)의 반대말로, ‘그룹에서 인기 있고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JMT는 ‘존맛탱’이라는 단어의 이니셜을 콩글리시로 따온 말로서 ‘매우 맛있다’는 뜻입니다. ‘TMI’는 영어 too much information 이고, ‘TMT’는 too much talker 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정보 외에 ‘쓸데없는 더 많은 정보’, ‘너무 많이 많은 사람’을 각각 의미합니다. ‘툼곡’은 문자를 거꾸로 돌리면 그 뜻을 충분히 아실 테고(눈물),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특히 유행어는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젊은층이 ‘인싸’를 만들게 되었고, 맛집, 먹방이 유행하는 문화에서 ‘JMT’가 생겨났으며, 설명을 길게 읽어보려고 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

가 ‘TMI, TMT’를 사용하고 있죠. 한때의 행복에 취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 신조어들을 재미삼아 우리 믿음생활 속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TMT 아니냐? 그래도 말씀이 너무 JMT니까 예배가 길어도 즐거워. 주일날 예배 빠지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게 어때?”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 상당히 재미있고 제 스스로도 ‘인싸’가 된 것만 같군요. 작년부터 목사님께서 30년을 즐겨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올해는 좀 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인싸’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김대화 성도

realdialog@naver.com

레아의 노래

레아,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동생 라헬보다 용모가 뛰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창29:20).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레아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최근 ‘레아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레아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게 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그건 바로 낮은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 레아의 결혼은 아버지 라반의 야곱에 대한 속임수로 이루어진다. 그러다보니 남편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고 늘 자신의 동생이자 두 번째 부인인 라헬에게 향해있다.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했으니 그 사랑의 깊이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다. 첫째 아들 ‘르우벤(보라 아들이다)’, 둘째 아들 ‘시므온(듣다)’, 셋째 아들 ‘시므온(연합하다)’, 아들들의 이름은 마치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모습이기도 하다. ‘여보, 저를 좀 봐주세요. 여보,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보,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라헬을 향해있다. 이에 레아는 깨닫는다. ‘내가 간구할 것은 남편의 사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지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살던 삶의 목표를 버리고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찬송하다)’를 출생한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인정한다. 레아가 남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 순간, 그녀가 낳은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은 레아처럼 특별하고 귀한 존재니까요. 송현혜 성도

